

# 후기 중세국어 부정문의 서법별 변천 양상 연구\*

박형우\*\*

## || 차례 ||

- I. 서론
- II. 후기 중세국어의 ‘아니’ 부정문
- III. 후기 중세국어의 ‘몰’ 부정문
- IV. 의문문과 장형부정문화의 연관성
- V. 결론

## 【           】

본 연구는 후기 중세국어 부정문에 나타나는 변화 중 장형부정문화와 관련한 것이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두 유형의 부정문 중에서 장형부정문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과 관련한 문법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서법 중 의문문은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방해하고 단형부정문을 생성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결론을 확인했다. 의문문은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문문이 장형부정문화를 방해하는 강도는 15세기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다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 중세국어에서 나타난 장형부정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특징을 부정소 ‘아니’나 ‘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5세기의 자료에서는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6159)

\*\*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의문문이 장형부정문화의 역기제로 작용하는 강도는 ‘아니’ 부정문보다는 ‘못’ 부정문에서 더욱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의문문의 영향력은 ‘아니’ 부정문보다는 ‘못’ 부정문에서 급격하게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문문에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장형부정문화를 방해하는 것은 구어(口語)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후기 중세국어, 부정문, 장형부정문화, 서법

## I. 서론

국어사적으로 부정문의 변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장형화이다. 단형과 장형 두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압도적으로 장형부정문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정문의 장형화는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문의 장형화 경향은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뿐만 아니라 서법별 특징에 따라서도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본고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서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법(mood/modal)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서정수(1996:297)에 따르면 서법은 “말할이가 문장의 내용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 태도(mental attitude)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며 이 문법 범주는 “용언의 굴절 형태나 어미 또는 문말 형태 따위로서 서법적 의미(modality)를 나타내는 형태”를 가리킨다.

서법은 크게 비문말 서법과 문말 서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문말 서법을 중심으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되 감탄문

의 경우에는 일부 선어말어미를 고려하기로 한다. 이는 중세국어가가 가진 서법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우선 서법에 따라 부정문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문장 종결형과 관련 없이 연결형으로 나타나는 부정문은 제외하였다. 명확하게 서법적으로 분류가 가능한 완결된 문장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서법상 청유문과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말다’ 부정문으로 나타나 장형 부정문화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1)</sup>

본고에서는 후기 중세국어의 부정문 추출을 위하여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역사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말뭉치 자료의 검색을 위해 unicon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국어사 말뭉치 자료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 15세기 말뭉치 분석 자료 목록

연도	자료	연도	자료
1446	訓民正音解例	1466	救急方診解
1447	釋譜詳節	1467	牧牛子修心訣
1447	龍飛御天歌	1467	蒙山法語
1447	月印千江之曲	1475	內訓
1459	月印釋譜	1481	杜詩診解
1461	楞嚴經	1481	三綱行實圖
1463	法華經	1482	金剛經三家解
1464	金剛經	1482	南冥集
1464	般若心經	1485	觀音經
1464	上元寺重創勸善文	1489	救急簡易方
1464	禪宗永嘉集	1496	六祖壇經

1) 다만 ‘-게’ 사동문의 경우에는 ‘아니’와 ‘몰이’ 그대로 쓰인 “또 금지하야 불의에 빠디 디 아니케 흐라 <呂氏鄉約 화산문고본, 35b>”, “즉제 오스로 벗부리를 뿌려 귀운이 나디 몰 흐게 흐라 <救急簡易方, 6:24b>”와 같은 명령문의 용례가 있지만 그 용례가 많지 않고 이러한 예를 전형적인 명령문으로 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1464	阿彌陀經	1496	眞言勸供
1465	圓覺經	1500	改刊法華經

〈표-2〉 16세기 말뭉치 분석 자료 목록

연도	자료	연도	자료
1514	續三綱行實圖	1569	七大萬法
1517 이전	翻譯老乞大	156?	呂氏鄉約 화산문고본
1517 이전	翻譯朴通事	1565~1575	順天金氏簡札
1518	翻譯小學	1567	蒙山和尚六道普說診解
1518?	二倫行實圖	1577	誠初心學人文
1518	呂氏鄉約 존경각본	1577	發心修行章
1518?	正俗診解	1579	重刊 警民編
1522	法集別行錄	1588	小學診解
1525	簡易辟瘟方	1590	論語診解
1541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1590	孟子診解
1542	分門瘟疫易解方	1590	大學診解
1554	救荒撮要	1590	中庸診解
1569	禪家龜鑑診解	1590	孝經診解

## II. 후기 중세국어의 ‘아니’ 부정문

박형우(2005)와 박형우(2014)를 참고하여 후기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아니’ 부정문의 장형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후기 중세국어 ‘아니’ 부정문 비율

‘아니’ 부정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형부정문	1,494	17.4	552	18.7	2,046	17.7
장형부정문	7,095	82.6	2,402	81.3	9,497	82.3
합계	8,589	100.0	2,954	100.0	11,543	100.0

후기 중세국어에서 ‘아니’ 부정문의 단형 대 장형의 비율은 15세기 자료의 경우 각각 17.4%와 82.6%로, 16세기에는 18.7%와 81.3%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특히 15세기 자료의 경우 ‘龍飛御天歌’와 같이 단형부정문만 보이는 자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16세기 자료보다도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후기 중세국어의 ‘아니’ 부정문에서 단형 대 장형의 비율을 보면 17.7%와 82.3%로 장형부정문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형부정문화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전반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아니’ 부정문의 경우 단형과 장형을 합하여 8,589개, 16세기는 2,954개로 총 11,543개의 부정문이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되었으나 연결형에 나타나는 부정문을 제외하고 서법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2,009개 정도였다.

〈표-4〉 세기별 ‘아니’ 부정문의 서법 유형별 자료 비율

‘아니’ 부정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평서문	981	70.1	408	66.9	1,389	69.1
의문문	243	17.4	181	29.7	424	21.1
감탄문	175	12.5	21	3.4	196	9.8
합계	1,399	100.0	609	100.0	2,009	100.0

서법상 문장의 비율에 따라 자료를 살펴보면 15세기의 경우 전체 분석 자료 중에서 평서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1%, 의문문은 17.4%, 감탄문은 12.5%였다. 16세기의 경우에도 66.9%, 29.7%, 3.4%로 비율만 차이가 있을 뿐 자료의 양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순이었다. 후기 중세국어 전체적으로 보면 평서문의 비율이 69.1%로 압도적으로 많고, 의문문이 21.2%, 감탄문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 1. 평서문

일단 중세국어 자료에서 ‘아니’ 부정문 중 평서문으로 분류한 문장은 종결어미로 ‘-다(라), -니라’ 정도가 쓰인 것들이다. 다만 이 중에서 감동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것은 감탄문으로 분류하여 평서문의 용례에서 제외하였다.<sup>2)</sup> 분석 과정에서 평서문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용례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가. 痘患 藥을 묻 어들썩 命이 아니 오라시리이다 <月印釋譜21:215a>  
 나. 그 어미 어려워 너져 아니흐더라 <二倫行實圖10a>  
 다. 이제 도르려미 이 곧흐니 人情에 맞디 아니타 <內訓2:71a>  
 라. 道力이 오라 邪의 자보미 득외디 아니흐리라 <楞嚴經1:39b>

평서문 중에서 ‘아니’ 부정문을 형성한 용례를 단형과 장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평서문인 ‘아니’ 부정문의 유형별 비율

‘아니’ 의문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형부정문	130	13.3	52	12.7	182	13.1
장형부정문	851	86.7	356	87.3	1,207	86.9
합계	981	100.0	408	100.0	1,389	100.0

2) 일반적으로 감탄법과 관련하여 선어말어미를 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영근(2010), 구분관 외(2016) 등에서는 주로 종결어미만을 중심으로 감탄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기문(1998:180)에서는 “感歎法의 어미 ‘-고나’는 16세기 초엽의 번역박 통사에 처음 보인다. 예. 痘患 거슬 모른듯 흐고나(상 73). 15세기에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도-’와 평서법의 어미 ‘-다’의 연결로 표시되었다. 이밖에도 ‘-너더’, ‘-르썩’이 있었다.”라고 하여 선어말어미를 감탄법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시기별로 비교를 해 보면 평서문의 경우 15세기에 장형부정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86.7%이고 16세기에는 약간 증가하여 87.3%이며 후기 중세국어 시기 전체적으로는 86.9%를 차지하고 있다. 후기 중세국어 부정문 전체 중에서 장형부정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표-3>에서 82.3%였던 것을 고려하면 평서문에서 나타나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전체 부정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6세기에 평서문에서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조금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평서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단형과 장형의 비율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정한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전체적인 부정문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아도 장형부정문이 약간 더 비율이 높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 2. 의문문

중세국어 자료에서 ‘아니’ 부정문으로 분류한 의문문에 쓰인 종결어미는 매우 다양하다. 어미로 ‘-녀/니여/니야, -리어/리아/리야/려, -니오/뇨, -리오/료, -는가, -려가(르가), -려고(르고), -르고, -는다, -던다, -는다, -려다(르다), -닛가, -니잇가, -니잇고’ 등이 쓰인 다양한 의문문이 확인된다. 분석 과정에서 의문문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3)</sup>

- (2)-가. 사르미 제 므슴 體性을 삼느니 아니 迷惑호녀 <楞嚴經2:20b>  
나. 다른 世界엿 부테 아니 오신가 <釋譜詳節24:3b>

3) 감동의 선어말어미와 평서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것은 감탄문으로 분류하였으나 감동의 선어말어미와 의문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것은 의문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의문문은 극히 적는데 “부테 엿데 더를 降服히디 아니호시뉘던고 <月釋4:20b>, 趙州스 프든 果然 그러호도소니야 아니호도소니야 <蒙山57a>” 등이 그 예이다.

- 다. 네 엇데 날드려 아니 니른다 <月印釋譜20:67b>  
 라. 부터 授記호산 比丘 | 아니 겨시니잇가 <釋譜詳節24:33a>  
 마. 禮 업스면 엇데 썰리 죽디 아니호료 <禪宗永嘉集상16b>  
 바. 이제 엇더 逃遁亡망호야 가디 아니 호시논고 <月印釋譜20:105a>  
 사. 네 엇디 암홀 내야 주디 아니호는다 <月印釋譜7:17a>  
 아. 엇데 通通호야 犯瞞티 아니호리잇고 <南明集상:8a>

의문문의 경우에는 비교적 세기별로 검토된 자료의 측면에서 두 세기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서법별 분석 대상이 된 자료를 내적으로 살펴보면 15세기보다 16세기에 들어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문문 자료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의문문인 ‘아니’ 부정문의 유형별 비율

‘아니’ 의문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형부정문	116	47.7	62	34.3	178	42.0
장형부정문	127	52.3	119	65.7	246	58.0
합계	243	100.0	181	100.0	424	100.0

후기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부정문의 단형과 장형 비율과 달리 의문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15세기 자료에서는 그 비율은 각각 47.7%와 52.3%로 두 유형의 비율상 차이가 크지 않는다. 이러한 비율은 16세기에 각각 34.3%와 65.7%로 변화하였다. 15세기와 비교하면 장형부정문화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표-3>에서 16세기 자료에 나타난 ‘아니’ 부정문의 단형 비율이 18.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의문문의 단형부정문 비율이 오히려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 중세국어 전반을 살펴보아도 ‘아니’ 부정문에서 전체 단형의 비율이 17.7%에 불과한데 의

문문에서는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42.0%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장형 부정문화가 안정화를 보였다. 그러나 의문문의 경우에는 15세기에는 장형 부정문화가 다른 부정문과 달리 심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16세기에 와서는 장형부정문화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서법과 비교하면 장형화의 진행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감탄문

중세국어 자료에서 ‘아니’ 부정문으로 분류한 감탄문은 종결어미로 ‘-르썸, -ㄴ더’가 쓰인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동의 선어말어미 ‘-도-, -돏-, -웃-, -스-’ 등과 함께 평서형의 종결어미가 쓰인 경우만은 감탄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현대국어와 같이 종결어미만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중세국어의 경우에는 감탄이라는 표현을 위해서 선어말어미가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체계만을 위한 종결어미 중심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방식으로 감탄문을 정리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감탄문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가. 마초와 내 아니 갈셔 <翻譯朴通事53b>

나. 子藏의 의복이 맞디 아니흔더 <小學諺解4:44a>

다. 菩甁提甁樹瓮를 주기면 王왕이 아니 가시리로다 <月印釋譜25:114b>

라. 내 ㅁ슴ㅁ장 ㅅ교디 나를 민디 아니홀썸 <月印釋譜22:57b>

마. 禮로 ㅅ ㅎ면 ㅅ 可히 ㅅ ㅅㅅ티 아니흔린더 <論語諺解2:12a>

바. 密密密密흔 行嚮藏짱이라 자취 날디 아니ㅎ도다 <南明集상:59b>

후기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아니’ 부정문 중에서 감탄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7〉 감탄문인 ‘아니’ 부정문의 유형별 비율

‘아니’ 감탄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형부정문	7	4.0	3	14.3	10	5.1
장형부정문	168	96.0	18	85.7	186	94.9
합계	175	100.0	21	100.0	196	100.0

‘아니’ 부정문 중에서 감탄문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형부정문화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의 자료를 보면 감탄문에서 ‘아니’ 부정문이 장형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96.0%에 이른다. 오히려 16세기에는 상대적으로 감탄문의 ‘아니’ 부정문 중 장형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85.7%로 떨어졌다. 다만 16세기에는 전체 용례가 18개 정도로 매우 적어서 그 수치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전체 후기 중세국어 부정문에서 살펴보면 ‘아니’ 부정문인 감탄문은 94.9%가 장형부정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문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서법으로서 감탄문은 오히려 장형부정문화에 매우 크게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감탄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용례가 장형부정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부정문에서보다도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세기 자료의 경우에 대부분의 감탄문 용례가 ‘杜詩諺解’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16세기와와의 비교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Ⅲ. 후기 중세국어의 ‘믄’ 부정문

부정문의 장형화와 관련하여 ‘믄’ 부정문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는 ‘아니’ 부정문과 큰 차이가 없다.

〈표-8〉 후기 중세국어 ‘믄’ 부정문 비율

‘믄’ 부정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형부정문	1,346	23.6	509	27.7	1,855	24.6
장형부정문	4,350	76.4	1,327	72.3	5,677	75.4
합계	5,696	100.0	1,836	100.0	7,532	100.0

15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믄’ 부정문에서 단형 대 장형의 비율은 각각 23.6%와 76.4%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6세기 자료에서도 ‘믄’ 부정문의 비율은 각각 27.7%와 72.3%로 나타나 근본적으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기 중세국어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믄’ 부정문의 단형과 장형의 비율은 24.6%와 75.4%로 3배 이상 장형부정문이 많다.

15세기 ‘믄’ 부정문에서 분석한 부정문은 1,663개 정도였다.

〈표-9〉 세기별 ‘믄’ 부정문의 서법 유형별 비율

‘믄’ 부정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평서문	748	62.1	295	64.4	1,043	62.7
의문문	141	11.7	52	11.4	193	11.6
감탄문	316	26.2	111	24.2	427	25.7
합계	1,205	100.0	458	100.0	1,663	100.0

서법상 문장의 비율에 따라 자료를 살펴보면 15세기의 경우 전체 분석 자료 중에서 평서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1%, 의문문은 11.7%, 감탄문은 26.2%로 역시 평서문의 자료가 가장 많았지만 ‘아니’ 부정문과 달리 ‘몰’ 부정문에서는 의문문보다 감탄문 용례가 더 많이 나타났다. 16세기의 경우에도 64.4%, 11.4%, 24.2%로 비율만 차이가 있을 뿐 서법상 비율의 순위는 15세기의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16세기 자료의 경우 앞에서 밝힌 바대로 15세기 자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서문의 비율은 약간 증가했으며 감탄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니’ 부정문과 달리 ‘몰’ 부정문에서는 15~16세기간에 서법 자료별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후기 중세국어 전체적으로 보면 평서문의 비율은 62.7%, 의문문 11.6%이며 감탄문의 비율은 25.7%였다.

## 1. 평서문

후기 중세국어 자료에서 ‘몰’ 부정문으로 분류한 평서문의 종결어미는 앞에서 밝힌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같다. ‘몰’ 부정문 중 평서문으로 분류한 용례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4)가. 목숨 뜨거비 손소 몰 죽노이다 <월천52a>

나. 부더 니르산 四諦는 다르게 몰흐리라 <法華經2:154a>

다. 이와 이 아니왓 뜨들 아디 몰흐노이다 <楞嚴經2:55b>

라. 넷 양직 업거시닐 親흔 사르미 아디 몰흐더라 <內訓2:61b>

평서문과 관련하여 ‘몰’ 부정문의 용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10〉 평서문인 ‘몰’ 부정문의 유형별 비율

‘몰’ 평서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형부정문	217	29.0	66	22.4	283	27.1
장형부정문	531	71.0	229	77.6	760	72.9
합계	748	100.0	295	100.0	1,043	100.0

우선 시기별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15세기의 ‘몰’ 평서문에서 장형 부정문의 비율은 71.0%였다가 16세기에는 77.6%로 장형화의 경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8>를 고려하면 전체 ‘몰’ 부정문은 15세기에서 16세기를 거치면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몰’ 평서문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43개의 평서문인 부정문 중에서 27.1%는 단형부정문이고 72.9%는 장형부정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은 <표-8>에서 전체 ‘몰’ 부정문 중 단형과 장형 비율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달리 ‘몰’ 부정문의 평서문에서는 장형부정문 비율이 전체 ‘몰’ 부정문의 평균 비율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법 측면에서 평서문은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에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특정한 유형의 부정문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 2. 의문문

중세국어 자료에서 ‘몰’ 부정문으로 분류한 의문문의 종결어미는 앞에서 밝힌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같다. ‘몰’ 부정문 중 의문문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용례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가. 이 大施主의 得흔 功德이 하녀 ㅁ 하녀 <法華經6:9a>  
 나. 病엿 藥을 지수려 ㅎ노니 ㅁ수미 ㅁ 이실까 <釋譜詳節11:20a>  
 다. 네 이제 듣는다 ㅁ 듣는다 <楞嚴經4:125a>  
 라. 命終흔 사르미 큰 利益과 解脫을 得ㅎ리잇가 ㅁ ㅎ리잇가 <月印釋譜21:107b>  
 마. 소니 잡디 ㅁㅎ며 바리 올마 들디 ㅁㅎ느뇨 <牧牛子修心訣19a>  
 바. 故鄉에 오히려 ㅎㅍ 가디 ㅁ홀가 <杜詩23:46a>  
 사. 글월 기로ㅁ 아는다 아디 ㅁㅎ는다 <金三1:31b>  
 아. 엇데 迷ㅎ야 닻가와 드디 ㅁㅎ느니잇고 <圓覺하3-1:13b>

‘아니’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ㅁ’ 부정문의 의문문에서도 장형부정문화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의문문인 ‘ㅁ’ 부정문의 유형별 비율

‘ㅁ’ 의문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형부정문	88	62.4	21	40.4	109	56.5
장형부정문	53	37.6	31	59.6	84	43.5
합계	141	100.0	52	100.0	193	100.0

우선 15세기 자료만 살펴보면 <표-8>에서 전체 ‘ㅁ’ 부정문 중 단형부정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6%인데 의문문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이 62.4%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장형부정문 비율보다도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니’ 부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ㅁ’ 부정문에서도 15세기의 의문문은 장형부정문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6세기 자료를 보면 이러한 양상에 일정한 변화가 보인다. 16세기 전체 ‘ㅁ’ 부정문 중에서 단형부정문의 비율은

27.7%로 장형부정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15세기보다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약화되어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데 ‘몰’ 부정문의 의문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장형부정문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에 62.4%를 차지하던 의문문의 ‘몰’ 단형부정문은 16세기에 와서 40.4%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결국 ‘몰’ 부정문의 의문문에서도 16세기에는 장형부정문화가 진행되어 단형부정문보다 장형부정문이 많아졌다. 그렇지만 16세기 전체 ‘몰’ 부정문에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27.7%인 것을 고려하면 의문문에서는 여전히 장형부정문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문문이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방해하는 정도는 15세기에 훨씬 강하다가 16세기에 전반적으로 장형부정문화가 진행되면서 그 강도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후기 중세국어 전반을 살펴보면 ‘몰’ 부정문의 의문문에서 단형부정문이 나타나는 비율이 56.5%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문문의 경우에는 ‘아니’ 부정문뿐만 아니라 ‘몰’ 부정문에서도 의문문이 장형부정문화를 막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의문문이 장형부정문화를 방해하는 정도는 ‘몰’ 부정문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15세기에 비해 16세기에 들어서서 장형부정문화의 진행으로 그 영향력이 ‘몰’ 부정문에서 크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감탄문

중세국어 자료에서 ‘몰’ 부정문으로 분류한 감탄문의 유형은 앞에서 밝힌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같다. 다만 ‘-르썸’이 쓰인 ‘몰’ 부정문은 단형과 장형에 구분 없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으며, ‘-르더’의 경우에는 단형에는

나타나지 않고 장형의 ‘못’ 부정문에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못’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게라’의 경우에는 역시 장형부정문에서만 나타나는데 ‘-ㅎ-’와 결합할 때는 모두 ‘-ㅎ-’가 생략되는 특징이 있다. 다만 ‘-애라/에라’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에서만 그 예가 확인된다. ‘못’ 부정문 중 감탄문으로 분류한 용례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가. 내 죽자 시젯 벌 범거경을 못 보애라 <二倫行實圖33a>  
 나. 노흠고 어엿버 버노 못 쓰레라. <順天金氏簡札84:9>  
 다. 쏘 小根 益 어두미 그 數 | 못 헤리로다 <法華經3:142b>  
 라. 六륙祖조사 큰 오온 ㅼ들 보디 못ㅎ논더 <六祖壇經서7a-7>  
 마. 信이 업스면 그 可흠을 아디 못게라 <論語諺解1:17b>  
 바. 즈물쇠를 썰리 문듯 단디 못ㅎ도다 <杜詩諺解24:30b>

‘아니’ 부정문의 경우에는 그 용례가 많지 않아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통계 자료만을 본다면 감탄문은 장형부정문의 경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관련 자료를 우선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2〉 감탄문인 ‘못’ 부정문의 유형별 비율

‘못’ 감탄문	15세기		16세기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형부정문	45	14.2	29	26.3	74	17.3
장형부정문	271	85.8	82	73.9	353	82.7
합계	316	100.0	111	100.0	427	100.0

우선 15세기 자료만 살펴보면 ‘못’ 부정문의 경우 감탄문에서는 장형부정문이 85.8%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5세기 당시 전

체 ‘못’ 부정문 중 장형부정문이 76.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형부정문화와 감탄문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16세기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있다. 16세기의 자료에서는 전체 ‘못’ 부정문 중에서 장형부정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3%인데 반해 ‘못’ 부정문의 감탄문 중에서 장형부정문으로 나타나는 비율은 73.9%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15세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16세기에 와서 감탄문의 경우 ‘못’ 장형부정문은 용례의 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비율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용례가 매우 적었던 ‘아니’ 부정문과 비교하면 16세기의 ‘못’ 부정문에는 감탄문 용례가 427개로 그 수가 적지 않는데 이러한 비율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탄문의 경우도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그 서법적 특징이 장형부정문화와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후기 중세국어 전반을 살펴보면 감탄문의 장형부정문 비율은 82.7%로 후기 중세국어 ‘못’ 부정문 전반의 장형부정문 비율 75.4%와 비교하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IV. 의문문과 장형부정문화의 연관성

서법과 장형부정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아니’ 부정문의 경우 평서문은 장형화의 경향이 전체 ‘아니’ 부정문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세기별 변화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장형부정문의 비율은 ‘아니’ 부정문보다는 ‘못’ 부정문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못’ 부정문의 평서문에서는 장형의 비율이 72.9%로 후기 중세국어 단형의 ‘못’ 부정문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못’ 부정문은 16세기에 와서 장형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는데, 평서문의 ‘못’ 부정문에서는 장형의 비율이 15세기

71.0%에서 16세기 77.6%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의 평서문에서는 장형화의 경향이 동일하지 않다.

감탄문의 경우에는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 모두에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전체 장형부정문의 비율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5세기보다도 16세기에 오히려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도 ‘아니’ 부정문(15세기 96.0% → 16세기 85.7%)과 ‘몰’ 부정문(15세기 85.8% → 16세기 73.9%)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장형부정문화가 약화되는 경향은 전체 부정문의 경우보다 감탄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부정문인 감탄문의 경우에는 장형부정문화가 전체 부정문보다도 강하게 나타나다가 16세기로 가면서 그 경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의 장형화 경향은 감탄문의 경우 동일하지 않다. 전체 ‘아니’ 부정문 평균보다 감탄문의 ‘아니’ 부정문의 장형화 비율은 세기에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나지만, 감탄문인 ‘몰’ 부정문의 경우 16세기 자료에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서 감탄문과 부정문의 장형화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sup>4)</sup>

전반적인 장형부정화의 경향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것은 의문문이다. 우선 전체 장형부정문의 비율을 고려할 때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의 의문문에서는 장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의문문 중에서 ‘아니’ 장형부정문은 58.0%, ‘몰’ 장형부정문은 43.5%인데 전반적으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몰’ 부정문에서는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장형부정문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기별 변화 양상을 보아도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아니’ 부정문의 경우에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15세기에는 52.3%였다가 16세기에

4) 16세기 ‘아니’ 부정문 중 감탄문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21개로 매우 적다는 것도 이러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65.7%로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아니’ 부정문의 장형부정문 비율이 두 세기에 모두 80%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몰’ 부정문의 경우에도 의문문의 장형부정문 비율은 15세기에 37.6%였다가 16세기에 59.6%로 크게 증가하지만 70%가 넘었던 전체 ‘몰’ 부정문의 비율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법과 관련하여 의문문은 부정문의 장형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는 부정문의 장형화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형화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의문문이다.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서면서 장형화의 영향으로 의문문에서도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전체 부정문의 장형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법으로서 의문문은 장형부정문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문문이 장형부정문화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할 때 왜 의문문만이 장형부정문화를 방해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한 요인은 일단 부정문 중에서도 의문문인 부정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주시해야 할 자료가 있다.

<표-3>과 <표-8>에 의하면 16세기의 자료에서 단형과 장형의 비율은 ‘아니’ 부정문의 경우에는 17.4 : 82.6, ‘몰’ 부정문은 24.6 : 75.4 정도이다. 그런데 박형우(2005:11)에서 이와 비교하여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16세기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 呂氏鄉約, 二倫行實圖, 正俗諺解, 救荒撮要, 順天金氏簡札’ 등이 그 예인데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단형과 장형의 부정문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3〉 단형부정문이 우세한 16세기 말문치 자료의 부정문 비율

연도	자료	아니 부정문	몰 부정문
		단형 : 장형	단형 : 장형
1517 이전	翻譯老乞大	34.0 : 66.0	25.6 : 74.4
1517 이전	翻譯朴通事	33.3 : 66.7	29.4 : 70.6
1518	呂氏鄉約 존경각본	27.3 : 72.7	38.9 : 61.1
1518?	二倫行實圖	37.9 : 62.1	65.6 : 34.4
1518?	正俗諺解	28.9 : 71.1	57.9 : 42.1
1554	救荒撮要	25.0 : 75.0	66.7 : 33.3
156?	呂氏鄉約 화산문고본	17.8 : 82.2	38.9 : 61.1
1565~1575	順天金氏簡札	73.1 : 26.9	83.2 : 16.8

이 중에서 ‘呂氏鄉約’ 두 자료와 ‘二倫行實圖, 正俗諺解, 救荒撮要’는 전체 부정문 자료도 많지 않고, 특히 종결형 어미로 나타나는 용례는 그 수가 너무 적어서 문헌별 특성을 논의하기 위한 실질적인 분석이 무의미하다. 나머지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 順天金氏簡札’ 정도를 분석하여 볼 수 있는데 이들 자료에 나타난 청유문과 명령문을 제외하고 종결어미로 맺어진 부정문과 의문문인 부정문을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으로 나눠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4〉 관련 말문치 자료의 부정문 비율

		‘아니’ 부정문		의문문의 ‘아니’ 부정문		‘몰’ 부정문		의문문의 ‘몰’ 부정문	
		단형	장형	단형	장형	단형	장형	단형	장형
翻譯老乞大	단형	12	34.3%	9	64.3%	8	23.5%	6	50.0%
	장형	23	65.7%	5	35.7%	26	76.5%	6	50.0%
翻譯朴通事	단형	11	44.0%	7	77.8%	4	20.0%	1	50.0%
	장형	14	56.0%	2	22.2%	16	80.0%	1	50.0%
順天金氏簡札	단형	48	78.7%	30	93.8%	74	86.0%	10	71.4%
	장형	13	21.3%	2	6.3%	12	14.0%	4	28.6%
합계	단형	71	58.7%	46	83.6%	86	61.4%	17	60.7%
	장형	50	41.3%	9	16.4%	54	38.6%	11	39.3%

<표-14>에 의하면 용례가 많지 않아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정한 특징이 나타난다. ‘翻譯老乞大’나 ‘翻譯朴通事’의 ‘아니’, ‘몰’ 부정문에서는 장형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단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의문문인 경우에는 모두 당시 평균보다도 단형 부정문의 비율이 높거나 오히려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장형부정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順天金氏簡札’에서는 어느 경우나 단형부정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의 특징과 관련하여 구어(口語)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문헌 자료에 비하여 이들 자료는 상대적으로 문어(文語)보다는 구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는 역학서(譯學書)이며, ‘順天金氏簡札’은 문체상 서간문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들 자료들은 다른 자료에 비하여 구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어의 영향을 받은 자료에서 장형부정문화가 억제되는 것이 의문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문문에서 이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구어의 특징이 의문문에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어적 특징이 의문문에서 장형부정문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면 왜 이러한 영향이 의문문에서만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문은 문헌 자료에서 주로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은 자연스럽게 구어로 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의문문은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7)-가. 帝釋이 王의 슬보디 아니 설보시니잇가 <月印釋譜11:5a-b>

나. 長者 | 지비 와 무려 닐오디 長者는 엇디 樂디 아니호노 <觀音經 9a>

다. 尹融이 닐오디 집 사르물 불러 몬 議論호리여 호야늘 <三綱行實圖 런던忠9>

라. 王이 닐오디 師 | 性を 보시니잇가 몬호시니잇가 <牧牛子修心訣6a>

(7)의 예문을 보면 “슬보디”와 “닐오디”가 쓰인 것으로 보아 그 다음의 문장은 발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법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구어적 영향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문문의 경우에는 다른 서법, 특히 평서문과 달리 인용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구어의 영향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의문문의 용례는 평서문과 비교할 때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표-4>와 <표-9>에 따르면 전체 부정문 중 의문문인 부정문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아니’ 부정문에서는 평균 21.1%이며, ‘몬’ 부정문의 경우에는 전체 ‘몬’ 부정문의 11.6%에 불과하다. 반면에 평서문의 비율은 ‘아니’ 부정문 69.1%, ‘몬’ 부정문 62.7%로 나타나고 있다. 의문문의 경우 관련 예문의 상당수가 구어의 영향을 받는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다 보니 구어의 영향이 반영된 단형부정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서법보다 많아서 관련 비율이 수치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요인 이외에 의문문 자체가 단형부정문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조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8)가. 내 斯陋舍果를 得호라 호느녀 아닌느녀 <金剛51a>

나. 이 聚落에 다시 迷惑을 내려 아니호려 <楞嚴4:35b>

다. 이러토티 心을 動호실가 아니호시리잇가 (맹자3.8b)

- 라. 네 이 學無學 二千 사르물 보는다 아니 보는다 <月釋15:37b>
- 마. 내 너를 토니 이 알프녀 알프디 아니흐녀 <육조下25a>
- 바. 이 大施主의 得흔 功德이 하녀 못 하녀 <法華6:9a>
- 사. 이 良醫의 虛妄흔 罪를 能히 니르려 못 니르려 <月釋17:22a>
- 아. 師 | 性を 보시니잇가 못흐시니잇가 <牧牛子6a>
- 자. 大王아 네 이 두 아드를 보는다 못 보는다 <釋詳21:45b>
- 차. 글월 기로물 아는다 아디 못흐는다 <金三1:31b>

(8)의 예들을 살펴보면 부정 의문문이 소위 부가 의문문으로 제시된 것이다. (8가~마)는 ‘아니’ 부정문이며 (8바~차)는 ‘못’ 부정문인데 이러한 부가 의문문의 경우 주로 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8마, 차)와 같이 장형의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는 극히 적고 대부분 단형부정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문문에서 특별히 장형부정문이 억제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 의문문 형식의 부정문은 상대적으로 장형부정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용문으로 인한 구어의 영향뿐만 아니라 구문 자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 의문문은 선행하는 의문문에 추가로 부정의 의문문이 부가되는 형식인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주로 단형부정문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 V. 결론

후기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 나타나는 통시적 변화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중에서도 서법과 관련하여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

문 유형의 변화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서문의 장형화 경향은 전체 부정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을 비교해 보면 ‘아니’ 부정문의 평서문과는 달리 ‘못’ 부정문의 평서문에서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서문이 부정문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서 일정하지 않았다.

둘째, 의문문에서는 다른 서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높다. 전체 장형부정문의 비율을 고려할 때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의문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장형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법과 관련하여 의문문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부정문의 장형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감탄문의 장형부정문 비율은 전체 부정문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16세기로 가면서 그 경향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못’ 부정문의 감탄문은 16세기 자료에서 장형의 비율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서 감탄문과 부정문의 장형화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넷째, 서법과 관련하여 부정문의 장형화에서 의문문이 갖는 특수성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의문문에서 장형화의 경향이 매우 약화되는 이유는 의문문의 용례 자체가 구어(口語)의 영향을 받는 인용문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문인 의문문 중 부가 의문문의 경우 장형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장형부정문화가 의문문에서 약화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 이외에 장형부정문화와 관련하여 이를 추동하는 요소와 저지하는 요소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언의 영향이나 문체적 특징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2010, 집문당.
- 南豊鉉, 『國語 否定法の 發達』, 『문법 연구』 3, 문법연구회, 1976, pp.55-81.
- 구분관, 박재연, 이선웅, 이진호, 『한국어 문법 총론Ⅱ-의미, 화용, 텍스트, 어휘, 규범, 15세기 한국어, 한국어사, 문자』, 2016, 집문당.
- 박형우, 『16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 『韓民族語文學』 47, 韓民族語文學會, 2005, pp.1-24.
- , 『15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 -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을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67, 韓民族語文學會, 2014, pp.25-56.
- 서정수, 『수정 증보판 국어문법』, 1996, 한양대학교출판원.
- 이기문, 『新訂版 國語史概說』, 1998, 태학사.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Negatives Based on Mood in  
Late Middle Korean

Park, Hyeong-woo

This study is related with the change of negative sentences in late middle Korean. Already the tendency of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have been found before late middle Kor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son of this tendency. The consequenc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we found the factor which had effected in the tendency of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The mood of interrogative had effected in the tendency of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but the mood of interrogative worked as an reverse effect. The mood of interrogative had weakened the tendency of long forms in late middle Korean.

Secondly, the reverse effect related in the mood of interrogative worked more powerfully in 15th century than 16th century. This change seem to be related with strengthening of the tendency of long forms.

Thirdly, in negative 'ani(아니)' and 'mot(몰)', there was difference in the reverse effect related in the mood of interrogative. we confirmed that the reverse effect related in the mood of interrogative worked more powerfully in 'mot' negative sentences than 'ani' negative sentences. But the reverse effect related in the mood of interrogative weakened more rapidly in 16th century than 15th century.

Finally, in the mood of interrogative, the reduce of the tendency of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is related to the influence of the spoken language.

Key Word : late middle Korean, negative sentences, the tendency of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mood

박형우

소속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phwcgs@knue.ac.kr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